

## 크리스천 교육 무엇이 답인가? 공교육, 사교육, 온라인 교육, 홈스쿨링

엠피6:4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염려: 공교육이 너무 부실하여 아이들을 학교에 맡길 수 없다. 진화론, 사회주의, 공산주의, 부당한 성 교육, 성인지 교육, 남녀 구분을 없앴, 동성애 합법화, 기독교 조롱 등 이것은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 포함 전 세계가 안고 있는 문제,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는 큰 문제, 우리는 아이들이 다 미국에 산다. 아이들 손자 손녀들 교육 때문에 고민, 2주 전에 큰 딸이 존 파이퍼 목사의 팟캐스트를 보내 줌. 존 파이퍼 팟캐스트 2020년 3월 30일, 에피소드 1453 <공교육, 사교육, 온라인 교육, 홈스쿨링,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택해야 하는가? 로렌이라는 분의 질문: 목사님, 교육 문제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있는지 살피고 있는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현시대 그리스도인들은 홈스쿨링을 해야만 하나요? 공교육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택지 중 하나인가요? 공교육, 사교육, 교회에서 운영하는 사립학교, 온라인 교육, 홈스쿨링 등 어느 것을 택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우리가 키워야 할 아이들마다 조건이 다 다를 텐데 천편일률적으로 같은 것을 택해야만 하나요?

요즘 코로나 19사 사태, 불가피하게 온라인 교육,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크리스천 교육 무엇이 답인가? 공교육, 사교육, 온라인 교육, 홈스쿨링>

존 파이퍼: 살면서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 나는 기쁩니다. 더욱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제 저는 네 구절을 읽고 원칙을 제시하고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 아이들 교육의 주체와 책임

신6:4-9

시78:5-8

잠4:1-4

엠피6:1-4

자 이런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아이들 교육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 가정, 가족을 설계하셨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 가정  
현시대의 문제: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 우리나라 아이들을 안 낳는다. 가정당 0.8명

이것은 마귀의 일: 크리스천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이들을 낳아 잘 가르쳐야 한다. 이왕이면

많이 낳아서 세상을 지도하는 사람들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들의 전성기

특별히 아버지들은 아이들이 집, 교회, 사회에서 성숙한 크리스천, 열매를 많이 맺는 크리스천이 되도록 그들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일단 이것이 나의 결론이다.

### 좋은 자녀 교육을 위한 부모들의 다섯 가지 원칙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발견한 것들은 다섯 가지이다.

1. 부모는 아이들에게 하나님, 인간, 남성과 여성, 역사, 교회, 세상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선택해야만 한다. 특별히 사회생활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직업을 염두에 두고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려는 야망을 버려야 한다.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이 목표를 잘 설정해야 한다.

즉 아이에게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의 진리에 기반한 성경 중심의 세계관을 가르쳐서 아이의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 중심으로 형성되게 하는 책임은 교회나 정부에 있지 않고 가정의 부모에게 있다.

2. 세상이 기술 면에서 점점 더 복잡해지고 더욱이 팬데믹 같은 상황이 지속될 때 부모들은 더욱 정신을 차려서 다른 사람들의 적절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아서 자기 아이들을 위한 책임을 완수해야만 한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은 한정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특별히 직업에 신경을 써야 한다.

코로나 19 사태, 앞으로 점점 더 언컨택트 사회, 전문가가 대접받는 사회

무언가 전문적인 지식, 경쟁이 조금 덜한 분야

남자들, 간호사, 며칠 전 가천의대 김윤미 간호학과 교수, 간호학과에 남자들이 많이 온다.

간호사도 되고 119 구급 요원(공무원)도 된다. 이런 공무원이 되려면 간호학과 출신만 가능함  
믿음 생활 하기 참 좋다.

나는 무엇이 되었던 믿음 생활하기 좋은 전문직, 육체노동도 한 가지 방법  
타일 시공, 벽돌 시공, 패널 시공, 목수, 집짓기, 앞으로 이런 분야 꼭 필요하다.  
대학에 꼭 가지 않아도 된다. 가정을 유지하며 영적 생활하면 된다.

즉 남들이 잘 안 하는 직종을 택하면 된다. 머리가 좋으면 공부, 눈썰미가 있으면 기술  
그것도 아니면 육체노동

3. 지금 미국 정부와 세상은 점점 더 세속적으로 나가고 있다. 그런데 확고하게 자기들의 뜻을 이루리라고  
다짐하면서 정책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모든 교육은 절대로 중립이 아니며 세계관, 역사관,  
교육관, 가치관, 도덕관 등에서 반 기독교적이다. 특별히 공립학교 교사들의 이런 신념은 날이 갈수록  
반기독교적이며 이런 상태에서 아이들은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기독교미래연구원(CFI)의 세미나 '공교육의 문제점과 21세기 통일한국 교육을 위한 대안'  
CFI는 "현행 공교육은 여러 부분에 있어서 결함을 지니고 있는 진화론만을 과학적 정설로 가르침으로써  
자라나는 학생들의 세계관 형성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히고, "중고등 교과서의 내용은  
사춘기에 있는 학생들의 가치관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그런데도 대부분 교육기관이  
신다윈주의에 기초한 과학 교과서를 가르치고 있으며 그 결과 학생들은 무신론적인 유물론에 빠지고  
있는데 이러한 방향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 주장했다. 적자생존의 구조만을 가르친다. 무한경쟁,  
비인간화

4. 그러므로 점점 더 많은 부모들, 목사들은 학문적으로 뛰어나고 동시에 비싸지 않은 크리스천 학교들을  
세울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한다. 사실 미국에서도 돈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공립학교를  
보낸다. 무료니까. 공립학교 비용이나 크리스천 학교의 비용이 같다면 아마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주저하지 않고 크리스천 학교를 선택했을 것이다. 따라서 교육은 돈 문제이다. 그러므로 성경적 교육의  
핵심은 부모들과 교회의 리더들이 팀을 이루어 이 땅에 좋은 크리스천 학교들을 세우는 것이다. 그러면  
서 온라인 교육을 활성화하는 것도 현시대에는 바람직하다.

우리 교회의 미디어 사역, 주일학교, 그런데 이것이 발전하면 온라인 전체 교육을 수행할 수도 있다(국/  
영/수/과학/역사/성경). 그리고 개인적임 음악과 체육 활동

5. 부모들과 교회들은 세상을 위해 세상에서 분리하는 것에 대한 원칙을 지혜롭게 잘 이해해야만 한다.  
다시 말한다. 세상을 위해 세상에서 분리하는 것에 대한 원칙, 성경은 바로 이것을 가르치고 있다.

예수님의 말씀: 요15:19, 17:14-15

즉 우리는 세상 안에 살면서도 세상에 속하지는 않는다.

#### 진짜 세상 교육

아직도 대다수의 크리스천들은 세속화의 위기와 교회의 취약점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

특히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 그렇다.

하나님의 원래 의도와 계획: 믿지 않는 자들이 크리스천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세상 것으로 가득 찬 아이들  
가운데 크리스천 아이들이 섞여서 동료들의 압력을 받는 것을 계획하지 않으셨다.

사실 어떤 아이라도 아이는 이런 환경에 있으면 안 된다. 아이들은 지혜가 많고 사랑이 많은 크리스천  
부모들과 교사들에 의해 모든 것이 형성되어야 한다.

육군사관학교를 생각해 보라. 거기서 애국 장교들이 양성되어 나온다.

그런데 그 학생들을 적군이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라. 어떤 장교들이 나올까?

좋은 장교를 만들기 위해 적군의 도움을 받으면 되는가?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불신자로서 좋은 교사들도 있다. 그러나 이들의  
세계관, 역사관, 가치관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아이들 교육을  
맡기는 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질문: 아이들이 어떻게 세상을 알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실제 세상을 알고 거기에 부딪쳐 보는 일을 해야 할 때가 있고 방법이 있다.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의 교육을 생각해 보면서 내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을 다 크리스천 학교에 보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진짜 세상에 살았다. 그런데 우리는 TV가 없었다. 사람들이 말한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진짜 세상을 알 수 있나요?” 그러면 나는 말한다. “밖에 가면 알 수 있습니다!”, 큰 도시의 센터에 가 보라. 자전거를 도둑맞고 남자들끼리 싸우고, 집 옆에 있는 수도관을 부수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 머리를 때리고 등.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 이런 실제적인 일들이 벌어진다. 이것이 진짜 세상이다.

세상을 알기 위해서 집으로 세상을 가지고 올 필요가 없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저절로 다 배우게 된다.

크리스천 교육은 결코 도피를 위한 선택지가 되면 안 된다.

교육은 전도가 아니다. 다시 말해 아이들이 8살인데도 이런 아이를 전도자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학교 시스템을 선택하지 말라. 크리스천 학교에 가면 다 해결되겠지, 아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집에서(교회에서) 교육한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여기에 대한 보장은 없다.

그들이 공립학교에 간다고 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리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

여기에 대한 보장도 없다.

어떤 방식을 택하든 우리의 아이들이 바르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우리는 아이들을 맡은 청지기로서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긴다.

나의 간증: 세 아이 모두 공립학교, 합킨스 2, 오하이오 주립대, 다 석사 이상 교육, 전문가

나와 내 아내는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강조, 잠3:1-6

사위들도 다 좋은 아이들, 이제 손자손녀들만 잘 키우면 된다.

우리는 잘된 경우, 그렇게 안 되는 사례도 있다.

웨이트 박사: 훌륭한 그리스도인, 그래도 아들들 가운데 거지 생활하다고 죽은 아들

미국의 유명한 목사의 아들: 자살

사랑할 것이 못 된다. 그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실하게 살아간다.

### 홈스쿨링 혹은 교회 운영 학교

근거: 신6:4-9

몇 년 전 김남영 광운대 교수, 한국기독교홈스쿨협회 대표, ‘홈스쿨의 현황과 미래 전망’이라는 주제로 강의함. 크리스천투데이 기사

김 교수의 말: 신명기 6장 4~9절, “성경은 유·아동기 홈스쿨링을 매우 중요하게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말씀은 유·아동 홈스쿨링에 대한 강력한 부르심이며, 수많은 크리스천 부모와 자녀의 교육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제안이기도 하다”며 “유·아동기 자녀에게 무엇을 어떻게 언제 가르쳐야 하는지 부모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했다.

김남영 교수는 홈스쿨링과 현대교육을 다음과 같이 비교했다. 첫째로 현대교육의 목적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잠재력을 개발하여 유능한 인간이 되게 하는 데 있지만, 홈스쿨링은 세상 학문이나 기술 교육 이전에 자녀들을 거룩하게(Holiness) 양육하는 것에 목적을 갖는다.

둘째로 현대교육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특성을 개발해 주고 능력을 키우기 위하여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도록 권장하지만, 홈스쿨링은 자녀들이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의 교육을 시킨다.

즉 홈스쿨링은 어떠한 문제든지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성경에서 답을 찾고자 노력한다.

셋째로 현대교육의 환경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분위기를 강조하며 이런 환경을 갖춘 전문기관, 즉 학교나 학원에만 의존한다. 그러나 홈스쿨링의 장소는 가정이다. 가정이야말로 모든 인간교육의 중심이다.

넷째로 현대교육에서는 ‘자녀교육을 전문가에게 맡기라’고 가르친다. 따라서 현대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크기도 전에 전문가를 찾아 나선다. 그러나 홈스쿨링에서의 선생은 부모 자신이다. 하나님께서 부모에

게 부여한 가장 큰 의무도, 자녀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것이다(신6:4~9). 배움을 받는 학생은 가르치는 사람의 사상을 닮게 되어 있다. 따라서 현대의 자녀들은 전문가에게만 배우기 때문에, 부모보다는 세속의 선생을 닮는다.

김남영 교수는 “홈스쿨링의 장점은 첫째로 신앙에 집중할 수 있는 영성훈련, 둘째로 성경을 중심으로 한 그리스도인 성품훈련, 셋째로 자녀의 기질과 능력에 맞춰 할 수 있는 지성교육, 넷째로 다양한 연령층과 잘 어울리는 사회성 교육, 이 외에도 일대일 연속적인 지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행이나 견학을 비성수기에 할 수 있어 경제적이며, 가족과 친척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모든 장점들과 홈스쿨링의 성공 여부가 부모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큰 단점이기도 하다”며 “더불어 부모의 기독교적 세계관과 신앙관 및 경영능력 등에 대해서 조사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 결론

앞으로 언컨택트 세상이 열린다.

급변하는 세상이 된다. 아이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지도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과제  
우리 교회의 가장 큰 과제

부모에게 달려 있다. 어떤 인간상을 그리는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확고하게 알고 있는가?

이제 성경 작업이 끝나면 나와 함께 청장년 부모들이 고민해야 한다.

주기도문의 절실함(마6:9-13)

우리 주님께서 청장년 부모들과 아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실 줄로 믿는다.

좋은 가정의 길:

I respect you, I appreciate you, I love you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실 것이다.

이를 위해 모여야 한다. 우리의 가치가 좋으면 우리 교회로